

# “비교종교학 기독교 편향”

### 윤원철교수 '해방 50년 종교연구사' 세미나서 주장

## “아전인수식 연구풍토 지양 객관적-다원적 시각 필요”

우리나라 비교종교사는 주로 기독교 시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호교적(護敎的) 경향을 띠고 있어 종교다원주의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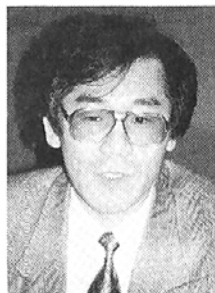
한국종교학회(회장 이은봉)가 10일 '해방 후 50년의 한국 종교 연구사'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해방 후 50년의 비교종교 연구사'란 발표를 통해 "종교와 종교를 직접적으로 비교·연구한 것은 70년대부터로 대체적으로 호교적인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종교 상호간의 올바른 이해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종교간 비교·연구서 총 90여권(종교학

계 발표 기준)을 조사 분석한 윤교수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학적 시각과 체계에 입각해 타 종교를 비교한 연구서는 총 15권. 이중 기독교적 시각에서 불교를 연구한 책이 9권인데 비해 불교 시각에서 기독교와의 비교를 시도한 논문·단행본중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5권 뿐이라는 것. 윤교수는 "아전인수적인 비교·연구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다원화된 비교·연구를 시도해 비교종교학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종교사회·종교철학 △무속·종교심리·한국종교 △인도종교·신종교 △유교·도교 등을 주제로 분과토의가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해

원스님(동국대)은 '법안문익(法眼文益)의 선사상'의 주제발표에서 "법안스님은 시찰인연을 관(觀)하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을 통해 화엄 사상과 선(禪)을 융합했으며 이것은 석두희천의 수행관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허인섭교수(연세대)가 '이질적인 pre-vedic과 vedic의 신화적 사고방식이 anti-vedic으로서의 불교이론에 미친 영향' 이진구교수(서울대)가



윤원철 교수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자유 개념의 수용' 김성철교수(동국대)가 '공(空)과 윤리' 김장홍교수(원광대)가 '소태산 은사상의 본질: 불교 연기와 관련'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종욱 기자

국제원효학회(IAWS)가 5월30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원효의 사상체계와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원효전서 영역사업의 기초가 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명태교수(동국대

### 국제원효학회 30일 학술회의

불교학)가 '원효의 사상체계'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가 '원효사상의 논리구조' 토버트 버스웰교수(UCLA)가 '원효전서 영역상의 난점들'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 등 15명의 학자가 토론에 나선다.

(02)260-3500

## “조선시대 암자 급증... 불교 맥이어”

### 이병희교수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 발표

역물승유정책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불교는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운영 이념으로서의 구실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수행·신앙 차로는 도리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끈다.

이병희교수(목포대 사학과)가 <역사교육>(역사교육연구회) 97년호에 발표한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에 따르면 조선 전기(1539년) 1천6백58개였던 사찰이 말기(1918년)에 이르러 22.6%가 감소한 1천2백83개로 조사

것. 또한 조선개국후 130여년이 지난 중종때 군·현별 사찰이 전체 평균 5개인데 비해 황해도는 8.9개로 이는 '고려시대 수도가 위치한 황해도'가 불교의 요충지였으므로 그 사찰분포를 조선전기까지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조선 후기 사찰 수는 <여지도서>를 토대로 할 때 1천9백2개 이고 경성도가 4백75개로 가장 많다. 이 책에는 특히 도량으로

서 역할을 상실한 사찰 3백56개를 금계(今廢)로 분류해 눈길을 끈다. '금계'란 폐사찰. 경성도의 경우 1백44개가 금계로 명시된 반면 함경도는 5개에 불과해 조선의 불교가 산중사찰로서 명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희 교수

1918년에 간행된 <조선불교통사>에는 전국 사찰 수가 1천4백78개(암자 6백98개)며 본사(本寺)는 경기도가 4개 충청도가 2개 경상도가 8개 등이며 마곡사 봉은사 등이 1백여개 말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교수는 "조선전기에서 말기까지 420년 동안 격변없이 지속한 사찰이 15.5% 정도에 불과한 것은 불교가 심히 위축된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각 도별 사찰수의 추이는 지방불교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척도"라고 덧붙였다. <속>

### 대장경에 새 생명 직지심경 찾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와 직지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가 5월부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통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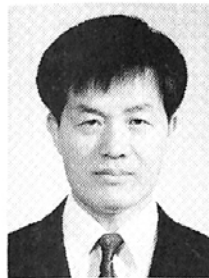
교 △판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이텔 서비스는 △문화재 보존 란을 개설 '장경각 및 고려대장경관 보존' '문화재 보존 연구 자료' '세계 문화재 보존 경향'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특징.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소식지 '장경도감' 한글대장경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직지찾기운동본부도 5월초 '직지찾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직지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조찬목(캠페인 운영위원) 씨가 오픈한 '직지찾기'는 △직지찾기운동 △홍익대사 △한국고인쇄문화 △직지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직지>를 흥덕사에 유치하려는 국제적인 캠페인 '직지찾기'의 홈페이지는 한글 뿐 아니라 영문도 제공한다. http://www.academy21.co.kr/jkji/

## 나와 경전



### 능엄경



김성열 <대구지법 검사>

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多聞第一) 한 수행자가 결실을 하기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살던 처녀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어머니에게 주술로써 그를 유인해 주도록 애원한다. 어머니는 하나 뿐인 딸을 위해 주술을 걸어 그를 방로 끌어들인다. 방에서, 주술에 걸린 그와 애욕을 즐기려는 처녀, 그의 스승께서 주술을 깨뜨리고 구해 주신다. 학식과 용모에 만족해 하다 특특히 망신을 당한 그는 자신의 부족한 수행력을 비통해 하며 스승께 수행의 방편을 묻는다.

<능엄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행자는 아난다이고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비록 2500여년 전의 일이지만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미모와 학식이 존중받는 우리 시대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용모가 뛰어났다. 또한 왕자의 신분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출가한 후에도 부처님의 시자로서 항상 결

<능엄경>의 핵심은 망상(妄想)을 극복하고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망상을 진심과 구별하지 못한다면 무량악감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마음의 도둑만 키울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능엄경>은 실상(實相)을 추구하는 대승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된다. 옛부터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과 더불어 강원의 교재로 사용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욕체는 망상대해 가운데 한 물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다. 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물거품 같은 욕체와 생각에 집착하며 살아 왔던가.

도둑을 도둑으로 알고 애착을 버렸을 때의 편안함과 기쁨은 체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이를 가리켜 선현은 '조문도 석사가의(朝問道夕死可矣)'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설산동자(雪山童子)는 나머지 구절을 듣기 위해 나날에게 몸을 던졌던 것이다.

## 망상극복 진심 찾는 현실적방법 제시 걸치레만 탐하는 현대인에 경종을 울려

에서 모였으며, 기억력이 출중하였으므로 학식에 관한 한 당대의 일인자였다. 그러한 점에서 아난다는 우리 현대인의 한 모습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모를 다듬고, 갖가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위와 자격증으로 치장한다. 그것도 모자라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 매일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지식 습득은 허깨비를 끌어 담는 것과 같이 억압을 뛰어넘는 내면의 추구(眞相)와 정신적 능력(德性)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다. 마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난다가 일곱 번 씩이나 말을 바꾼 것(七處徵心)과 같고, 도둑을 자식으로 알고 친자식을 버리는 격이다.

<능엄경>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경전이다. 그러하다 보니 옛부터 <능엄경>은 많은 필사를 받아왔다.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서술된 다른 경전과는 달리 <능엄경>은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실체를 규명한 경전이라서 자신의 견해를 장식(牽強附會)하는 데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62세 되던 해에 설하셨다. 이는 쇠털타와 나이가 같았던 파사니왕이 자신의 연령이 62세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는 반사시(般若時)에 해당한다. 그때쯤이면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승의 기초를 열심히 공부한 때 일 것이다.

<능엄경>을 배우면 대승의 기초가 되는 실상(眞相) 내지 공(空)의 의미와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과 관음보살의 무변신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 등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능엄경>은 대승 수행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하여야 할 경전이다. 교법(敎法)만이 존재하지 수행(修行)과 증과(證果)는 사라져 버린 말법(末法)시대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나누신 뜻과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개운당 대승스님의 <정본수행경원해산보기>(1993년 윤양성 번역으로 대영문화사에서 간행)를 참고하면 한다.

美 불교사사지 기사 사진등 검색 가점오기

SHAMBHALA SUN

Awakened Mind IN THE POST-MODERN WORLD

Inspired by Buddhism and the World's

두마피아 사이버 기행 삼발라선

세계적인 불교사사 계간지 <삼발라선(美)>의 모든 기사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삼발라선'이 개설됐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감포스원장 페마 초드론 스님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신간 소식을 비롯해 1995년 불호까지의 기사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삼발라선>지는 티베트의 정신지도자 달라이 라마, 마안바의 민주운동가 아웅산 수지, 미국의 불교사인 알렌 긴스버그, 필리핀의 탁남한 스님, 미국의 여성운동가 벨 후크 등의 주요 인물들을 커버스토리로 실어왔으며 예술·사회·정치·국제·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 시사계간지.

이곳을 방문한 불자 네티즌은 지금까지 게재된 기사와 사진 이외에도 <삼발라선>지가 '불자 선언(宣言)'이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구독신청도 할 수 있다.

'삼발라선'은 미국의 티베트불교계가 인터넷 상에 '삼발라 정보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볼만한 사이트이다. 주소는 'http://www.shambhalasun.com/'

2541 부처님 오신날

#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b>노적사</b> 주 지 석종후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전화 : 353-5016	<b>도림사</b> 주 지 성도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76-75 전화 : 815-6516	<b>보현회</b> 대표 김혜향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8-1 전화 : 923-2804	<b>동성방 화랑</b> 대표 장재천 전화 : 723-6577	<b>윤조각실</b> 종합불사(기회, 설계, 조각) 백옥불 금동불 계급 대형불상(석불, 청동불) 소형조각 각종 석조각 (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복수재료불상 제13회 불미전 장려상 수상 (천불전, 만불전) 제14회 불미전 우수상 수상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전화 : 0357/33-3568, 31-8963 원장 윤수현
<b>금강경 독송회</b>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전화 : 742-0172	<b>경수사</b> 주 지 김보경 신도회장 조상래 신도일동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묵신리 전화 : 0334/72-3668	<b>진관사</b> 주 지 진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전화 : 359-8410	<b>삼각산 도선사</b> 호국참회기도도량 주 지 차동광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04번지 중무소: 993-3161~3 주지실:993-5002 FAX : 993-3164	<b>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b>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 佛敎大事典編纂部 修行院 大愛道園 伽山學會 理事長 李智冠 ▶ 서울시 종로구 동소동 192-10 우당기법관 2층 전화 : 765-9602~3 전송 : 765-5673
<b>약사포교원 정법대학</b> 불교지도자협회 회장 장각성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6-4 전화 : 474-0554 전송 : 472-5292	<b>(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b> 회장 성순경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60 전화 : 02/395-2571~2	<b>한국불교미술원</b> 원장 정규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 02/730-8072 (야)648-0930	<b>한국불교미술원</b> 원장 정규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 02/730-8072 (야)648-0930	<b>한국불교미술원</b> 원장 정규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 02/730-8072 (야)648-0930

※ 바로잡습니다 : 본지 127호 도선사 광고중 주지 차동광을 주지 정영도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1차 인쇄이후 바로잡아 인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